

중독포럼 10월 월례 세미나

인터넷 게임중독! 개인의 문제인가? 사회의 문제인가?

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

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어울림홀

오시는 길



주소 :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어울림홀

문의 : 02-2258-7583

E-MAIL : addictionfr@naver.com

초대합니다

오후 10시, 학원 건물 1층에서 두 친구가 만납니다.
한 친구는 건물 10층 학원에서 내려오는 길이고,
한 친구는 지하 1층 피씨방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.
둘은 멧쩍은 듯, 씨익 웃고 각자의 집으로 향합니다.
학원, 피씨방...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아이들에게 이 두 곳은 어떤 의미일까요.

“게임도” 즐기던 아이들 중 몇 명의 아이들이 “게임만” 즐기는 아이가 될까?
게임만 즐기는 아이가 있다면,
어느 순간, 어떤 상태가 되면 질병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것일까?
게임, 게임광고의 홍수 속에서 게임하는 아이와 그 부모에게만
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?

과도한 게임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해법은
위와 같은 질문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질 것입니다.

중독포럼의 연구자들이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

2016년 10월
중독포럼 드림

인터넷 게임중독! 개인의 문제인가? 사회의 문제인가?

1. 지금 게임하는 우리 아이! 1년 뒤에는 어떨까?
▶ 이상규 (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)
2. 인터넷게임과 게임광고! 게임중독에 어떤 영향을 줄까?
▶ 이재경 (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)
3. 세계보건기구는 인터넷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할 것인가?
▶ 이승엽 (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)